

# 공주시, 10월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 성황리 접수

연간 1000여명 참여, 2학기 4개 분야 60개 프로그램 운영

공주시는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나아가 직업능력 향상까지 도모할 수 있는 '2학기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을 오는 12월까지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 풀꽃시인학교 수업 장면

이번 평생학습 특성화프로그램은 ▲직업능력향상(지게차·굴착기 운전기능사 실기과정, 조경기능사, 도자공예기능사 등) ▲마을교육생태계조성(평생학습매니저 양성과정) ▲지역학 기반 시민성 함양(박동진판소리꿈나무) ▲시민참여기회 확대(드론 활용) 등 4개 분야 60여 개이다.

특히, 박동진판소리전수관, 임림미술관, 드론스마트센터, 충남역사박물관, 공주농업기술센터 등 공주에 있는 우수한 평생교육 기관과 연계하여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공주시 평생교육은 2024년 교육부로부터 '우수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는 등 우수성을 입증받았으며, 연간 1000여명이 참여하는 특성화 프로그램은 공주시가 자랑하는 대표적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다.

최원철 시장은 "공주시에 특화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의 다양한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고,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임동숙 기자 3777@kknews.co.kr

[금강투데이] 공주시, 10월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

[충청메시지] 공주시, 10월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 성...